인천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민 행복 기틀 다져

내년도 국비확보 보고회…국비 6조원 확보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천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6조 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6조 원대의 국비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행복 도시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다.

인천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덕수 행정부시장, 이병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2024년도 첫 국비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중점 사업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과 시민 생활밀착형 편의사업, 정부 정책과 연계한 현안사업 등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4조 5,000억 원보다 5,000억 원이 증가한 5조 원,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역대 최대 보 달성한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정부의 미래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으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미정),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27억 원), △수소 모빌리티 보급 촉진(2,500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5,041억 원), △인천 제2의료원 설립(미정), △인천1 · 2호선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380억 원), △도심항공교통 도심 실증(656억 원) 등 20개 사업으로 2024년도 국비 2,386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 )안의 금액은 국 · 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임

계속사업은 연차별 국비 확보를 위해 △백령공항 건설(2,018억 원), △인천발 KTX 건설(4,238억 원), △GTX-B(6조 1,932억 원), △송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3,884억 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434억 원), △남동 국가산업단지 재생(361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정주여건 지원 등, 1,779억 원) 등은 철저한 집행실적 및 진행사항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2조 856억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1,980억원),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970억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필요한 △인천2호선 고양 연장(2조 830억 원)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사업 선정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각 정부 부처는 4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국비 예산 신청을 받아, 부처 예산안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로 심의 작업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시는 중앙부처 국비신청 마감 기한인 오는 4월 말까지 매월 국비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 민선 8기 중점 사업 및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종득 기자 kjd@yundailbo.com

서구가 환경분야 행정실적 평가 1위를 달성했다. 사진은 서구 에너지센터 개소식 모습. (사진 인천 서구 제공)

서구, 환경분야 행정실적 평가 '1위'

자원순환도시 인천 · 에너지분야 사업 추진 등
2050 서구 탄소중립 에너지센터 설립 등 인정

인천 서구가 인천 10개 군 · 구 대상 '환경분야 행정실적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총 5개 시책을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서구는 △ 수질보전 및 하천관리 1위, △ 자원순환도시 인천조성 사업 1위, △ 대기환경 업무 추진 3위, △ 생활환경 업무 추진 2위, △ 에너지분야 사업 추진 2위로 시책별로 전부분 상위 성적을 거둬 군 · 구 전체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우수 · 특수 시책 환경분야에서도 '에너지 정책 우수 · 특수시책' 으로 군 · 구 1위를 차지했다.

인천 군 · 구 행정실적 종합평가는 환경 분야를 포함한 총 8개 분야 33개 시책과 7개 분야 우수 · 특수시책에 대하여 인천시 10개 군 · 구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순환 분야에서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조금 지원과 대형감량기 보급 확대, 프레기 배출 교육 등을 통해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했다.

수질보전 및 대기환경 분야에서는 배출사업장 점검율 100% 달성, 영세 사업장 기술지원, 합동 방제 훈련 등을 진행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2050 서구 탄소중립 목표' 를 수립하고 인천 최초로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김정식 서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여러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유관기관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angyi6240@naver.com

도성훈 시교육감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방문 모듈러교실을 점검했다. (사진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시교육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방문

학부모 등 동참 모듈러교실 추진 현황 점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일 인천부평서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해 모듈러교실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 현장에는 인천시의회 유경희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이명규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등을 비롯해 학부모 등 40여 명의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진행 과정을 둘러봤다. 이번 점검은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사 중 학생의 학습 환경이 안전한지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021사업 대상교(14교) 중 인천부평서초, 인천동암초, 삼산한초, 인송중 등 4개교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모듈러 교실은 기존 학교 건물 개축 · 리모델링 시 6~12개월간 임시로 쓰는 가설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라 시공한다. 일반 건물과 단열재, 내화재를 특급이 넣어 기존 학교 건물과 가장 근접한 수준의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일반 건물 수준의 단열과 차음, 창호, 조명, 기계설비 등을 갖춰 일반 교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제작하며 독성물질 방출이 없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헤파(HEPA) 필터가 장착된 기계식 환기장치로 실내 공기질까지 관리한다. 이와 함께 모든 모듈러 교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원도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랜 역사가 있는 부평서초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숙 기자 pss@yundailbo.com

김정헌 중구청장, 장애인복지시설 4곳 방문 소통 행정

시설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작업활동 등 살펴

김정헌 중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 4곳을 방문 소통 행정을 펼쳤다. (사진 인천 중구 제공)

인천 중구는 최근 김정헌 중구청장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4곳을 방문하며 복지 분야 현장 소통 행정에 발 벗고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김정헌 구청장은 지난 17일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중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일도재활센(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잇달아 방문, 시설 종사자들과 장애인들을 만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 청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예가문화 활동, 직업재활, 작업 활동 등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논으로 살폈다.

아울러 시설에서 활동 중인 근로 장애인과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민선 8기 중구는 '구민이 행복한 교육 · 복지 도시' 실현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에 힘쓰며, 다양한 미술 · 음악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 2회 '세상! 두드림 여행' 사업을 추진,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여행 활동나들이 등이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여가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특히 오는 2024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 '복합공공시설' 을 건립할 예정으로,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희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 라면서 "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 최소화 등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며 장애인복지를 위해 항상 성찰하고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동수 기자 yds@yundailbo.com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보호 받으세요"

강화군, 농작물재해 ·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인천 강화군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에 나선다.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0%, 농업인안전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손해 등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대상 품목은 벼, 사과 등 과수, 벼,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등 70개로 올해 귀리, 양상추, 시설 봄감자가 새로이 추가됐다. 각 품목별로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농협에서 가입시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이 대상이며, 이 또한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적기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민안전보험과 더불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군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득 기자 kjd@yundailbo.com

DMZ-지역 국회의원 · 시구의원 정책간담회

계양구 발전·현안 원활한 추진 논의

인천 계양구는 20일 계양구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 과제와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 시 · 구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환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유동수 국회의원, 김종득 · 조성환 · 석정규 · 문혜종 시의원, 조상희 계양구 의회 의장과 구의원 5명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계양구는 계양 관광 인프라 확충, 부평역교 종합 정비 계획, 차 없는 거리 지정과 문화행사 추진, 계산시장 일원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계양문화광장(가칭) 조성 사업,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 단지 조성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국 · 시비 예산 확보와 행정적 협조가 필요한 15건의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윤환 구청장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양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도 "계양구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득 기자 kjd@yundailbo.com

편집=정기정 기자 jjk@